

대행 스님

여러분은 지금 살아생전에 이 도리를 꼭 아셔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한다면 세계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소립니다. 전부 바깥에서, 지금도 거기 싸우는 나라 어딥니까. 거기 대통령이 말하는 데도 "우리는 알라신이 이기게 한다." 그러고는 "저렇게 악인들은 다 떨어진다." 즉, 죽는다 이거죠. 조그마한 쿠웨이트가 기름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삼분의 일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적다고 그냥 뺏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부처님인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페만'이 아니라 '패망'이죠.

마음 한생각에 이렇게 고달프게 살게 만들어 놓고, 이끌어 주는 대변자가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때 저건 종교적인 설법도 아니고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나? 그러니까 칠 년이나 싸웠지.' 이런 생각이 듭디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그러는 동안에 그 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잘못 만나면 자녀들이 고생이 되듯이.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누구의 탓을 하지 마시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탓을 하지 말고 부모는 자식의 탓을 하지 말고 또 자기네 이웃을 탓하지 말고 자기부터 돌아다보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자기 탓이지 왜 남의 탓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약에 바닷물이라면 나도 바닷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종지라면 나도 종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한 생각을 해도 '에이, 그게 될까?' 이러는데 관습에 젖어 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실험을 못 하고 체험을 못 하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면서 그대로 실상이면서 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관습 때문에 그만 망가지는 거죠. 관습으로 인해서 착이 붙고 욕심이 붙어서 모든 일을 그르치고 자기가 자기를 밝게 못 보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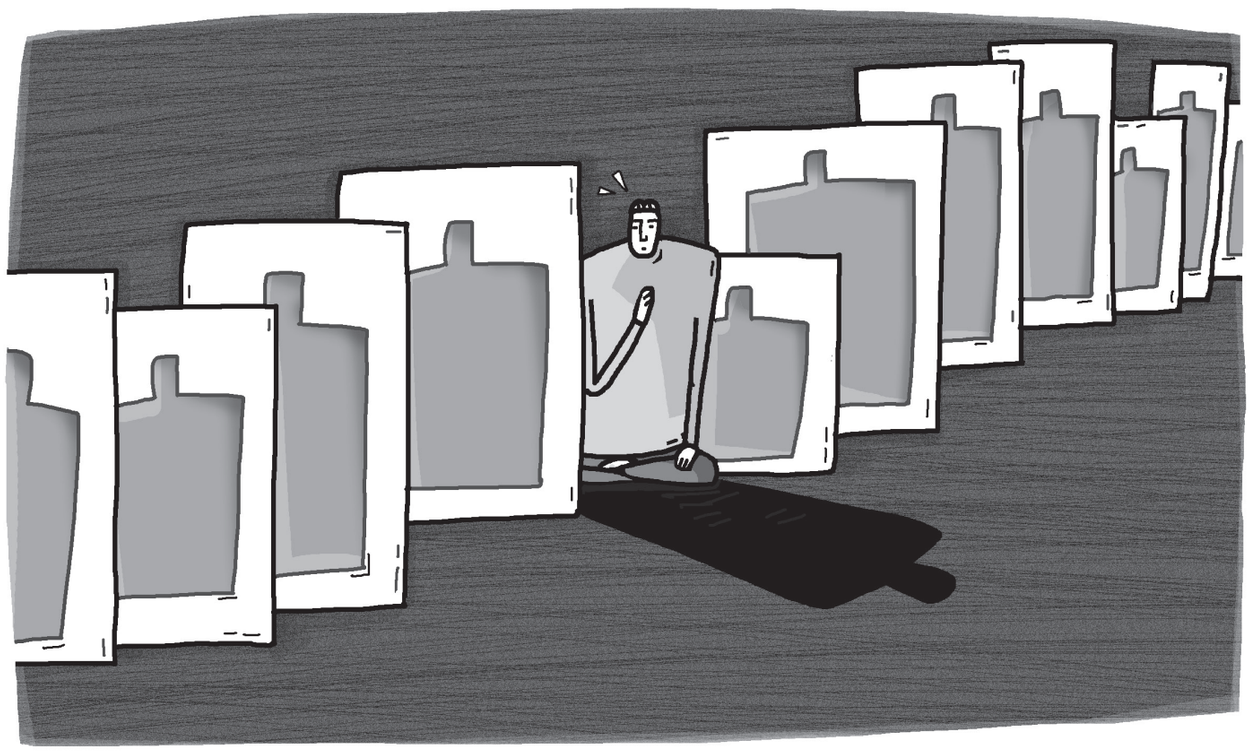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수화풍이라고 허무하게 생각 마시고 고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수화풍은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이 되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나한테 갖추어져 있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통의 불바퀴를 마음대로 굴려서, 체 없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나와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뜻은 한계가 없죠. 부처님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그러하죠.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혼자만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먹을 수 있다면 음파가 튕겨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음파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참 여러분이 갸륵합니다. 모른다 안다를 떠나서 받아들이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다가 된다면 더러운 거 깨끗한 거, 파도다 물이다 이런 이유가 붙지 않고, 폭포수가 내려가면 그냥 모여서 바다가 되는데 더러운 물, 핏물, 고름물 한데 합쳐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이름해서 그것도 젖는 것뿐이겠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게 붙으면 그것은 벌써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니깐요.

그래서 옛날에도 선지식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구(死句)를 따지는 사람들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서 허둥지둥하는 사람들이고 활구(活句)를, 이름해서 그것도 아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타고 피리를 가진 자라고요. 그렇게 되면 불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기 이전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할 때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불 반짝하는 그 찰나밖엔 없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도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요. 그냥 영원한 오늘이에요, 오늘. 그런데 오늘이라는 그 자체도 없다는 얘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나툰다, 화해서 나툰다, 공해서 나툰다. 이러니까 한생각이, 금방 이런 생각이 돌아갔다 금방 저 생각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거를 망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망상은 끊어야 된다." 이러거든.

아니, 산 사람이 그게 끊어집니까? 끊어서 끊는 게 아니죠. 컴퓨터에, 즉 말하자면 숙명통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과거에 입력된 것이 지금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걸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서 놓는 작업을 한다면 그래도 망상은 망상대로, 아니, 망상이 아니라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관여할 게 없죠. 그걸로 인해서 부처를 이루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게요. 목석이면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목석일 뿐이지.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관습도 두지 마시라 이거죠. 즉 말하자면 좌선이나 입선이나 또는 묵조선이나 간화선이나 와선이나 행선이나 이런 것이 모두가 둘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이름해서 참선입니다. 여러분이 변소에 가서 똥을 누는데 여러분이 각자 변소에 가니까 거기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왔으니까 법당에 부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다 하되 그 모든 것을 어떤 놈이 하느냐는 얘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다스릴 줄 알고,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인 줄 알고, 그렇다면 행을 그대로 하는 자라야만이 바로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유인이라는 소리를 듣죠. 이름해서 부처라 하는 그 한마디를 듣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이 '부처, 보살' 이런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첫째, 사람이 돼야 하고 둘째, 가정에서도 잘 다스려야 하고 셋째,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행을 잘할 수가 있고 올바로 갈 수가 있고 진실하게 갈 수가 있고, 얼토당토않은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만 보고 듣는데 어찌 이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독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의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죠. 학교에다가 맡겨 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요. 바로 2세, 자긴데요. 자기입니다. 더 발전을 해서 내 2세는 더 올바르게 진실하게 똑바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기를 길러 주는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종교를 떠나서, 이 불교라는 거는 어디 한 귀퉁이에 국한되어 있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살아가면서 말을 해야 되고 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교(敎)입니다. 바로 우리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만 아시지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망가지고

☞ 2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